

## F-F1-67

### 봉의꼬리의 뗏장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, 토심 및 재식간격의 영향

Effect of Media, Soil Depth and Planting Density on Sod formation of *Pteris multifida*

장현진·장영득·이철희\* (Hyeon Jin Jang·Young Deug Chang·Cheol Hee Lee\*)

충북대학교 원예학과 (Dept. of Horticulture, Chungbuk Nat'l. Univ., Cheongju 361-763, Korea)

본 연구는 조경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봉의꼬리의 유묘를 이용하여 조경용 뗏장개발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. 2007년 5월 충북대 포장에서 토양종류 3처리(피트모스 단용, 피트모스:피트모스 5:1, 4:1), 토심별 3처리(2, 3, 4cm), 재식거리 3처리(7.5, 10, 13cm)로 수행하였다. 봉의꼬리 유묘를 삼목상자(52×36×8.2cm) 5반복으로 식재하여 1일 1회 두상관수 하였다. 식재 후 8, 16주차에 초장, 초폭, 엽장, 엽폭, 엽수, 근장, 피복율, 생체중과 건물중 및 TR율을 조사하였다. 그 결과, 피트모스와 펠라이트를 4:1로 혼용한 토양에서 생육 및 피복율이 우수하였다. 토심은 4cm 처리구에서 생육 및 피복율을 기준으로 한 뗏장형성을 가장 높았다. 재식거리를 10cm로 할 때 초장, 초폭 및 근장 등의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높은 피복율(91.7%)을 보였다. 따라서 봉의꼬리의 유묘는 피트모스와 펠라이트를 4:1로 혼합한 토양에 토심을 4cm로 하여 10cm의 재식간격으로 식재하는 것이 뗏장형성에 가장 유용하며 90% 이상의 피복율을 보여 뗏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.

+82-43-261-2526, Email: [leech@chungbuk.ac.kr](mailto:leech@chungbuk.ac.kr)

## F-F1-68

### 공작고사리와 양치식물 3종의 월동에 미치는 재배장소 및 피복방법의 영향

Effect of Culture Sites and Mulching Methods on Overwintering of Three Parkeriaceae Ferns

오훈근·장영득·이철희\* (Hoon Geun Oh·Young Deug Chang·Cheol Hee Lee\*)

충북대학교 원예학과 (Dept. of Horticulture, Chungbuk Nat'l. Univ., Cheongju 361-763, Korea)

본 연구는 상록성이며 잎이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높으나 내한성이 약한 봉작고사리(*Adiantum capillus-veneris*), 선바위고사리(*Onychium japonicum*)와 내한성이 강한 부싯깃고사리(*Cheilanthes argentea*)의 겨울철 무가운 재배를 통한 저비용 월동재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 포트묘에서 재배한 식물을 2006년 12월에 월동장소를 충북대 노지포장과 무가운하우스 2장소로 하여 지상부만 지면 위로 나오도록 포트를 묻은 후 각각 피복방법을 3처리 즉 무피복, 왕겨피복(3cm) 및 비닐터널로 처리하여 월동시켰다. 무가운 하우스에서는 2주 1회 관수하였으며, 노지에서는 별도의 관수를 하지 않았다. 재배 14주 후 생존율, 20주 후 초장, 초폭, 엽수, 엽장, 엽폭,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하였다. 부싯깃고사리는 노지(무피복)에서도 58.3%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그 외 모든 처리구에서 80%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여 가장 월동이 잘 되었다. 선바위고사리와 봉작고사리 또한 재배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피복 처리구에서 5% 이상의 높은 생존율과 우수한 생육을 보였다. 3종 모두 중부지방에서 겨울철 무가운 월동이 가능하며 노지에서는 왕겨피복, 무가운하우스에서는 비닐피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봉작고사리, 선바위고사리 및 부싯깃고사리는 중부지방에서도 실외 조경용 소재로 사용 가능하며 무가운 하우스를 이용한 경제적인 연중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

+82-43-261-2526, Email: [leech@chungbuk.ac.kr](mailto:leech@chungbuk.ac.kr)